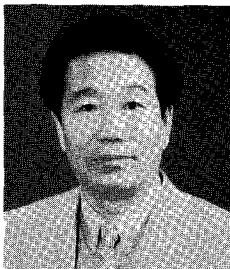


우리의 의식
전환이 선행
되어야 한다.



이 언 중
신영농원 대표
중계·부화산업발전협의회회장

작 금에 중계 부화업을 두고 침침산중이라 말한다면 무리한 표현은 아닐 듯 싶다. 돌이켜 보면 긴 불황의 늪에서 미처 손 쓸새없이 밀어 닦친 6·25 동난 이후 최악의 경제 사태인 IMF 구제금융 시대의 개막은 우리업계에 혹독한 시련과 따가운 질책을 안겨줬으며, 피나는 구조조정을 요구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시시각각 급변하는 현 상황을 비춰볼 때 이제야말로 소모적인 사고를 과감히 털어버리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경영으로 공존공영의 협동정신을 발휘할 때라고 본다. 과거 우리 경제가 그래왔듯이 중계부화업도 성공적인 88 올림픽 개최이후부터 경제성장과 소비향상에 편승하여 엄청난 외형적인 성장을 했으며 농어촌 발전기금 방출로써 시설자동화에 따라 갑작스런 생산량 증가는 많은 중계인을 도산케 하였다.

다른 한편에서 본다면 철저한 계획없이 시설 규모만 늘려온 무지한 농장경영에서 더 큰 원인이 있지 않을까 싶다. 이렇듯 멀리 보지 못하는 단순논리의 결과는 우리 양계산업 전반에 걸쳐 기형을 초래했으며 생산과잉이란 치료키 힘든 상처를 입었다. 그러므로 더 이상의 결단을 미루고 머뭇거리다면 불 보듯이 빠른 결과 앞에 돌이킬 수 없는 공멸을 면치 못할까 심히 걱정된다.

1. 불합리한 병아리 판매 유통구조

병아리 판매시에는 현금은 고사하고 3~4개월 어음을 받아야하는 것이 현실이고, 병아리 유통상인과 시세 줄다리기는 분양때마다 의례적인 행사로 치러질 정도로 심각해졌음은 물론

오전·오후 유동적인 병아리가격 시세는 최악의 경우 덩핑까지 이루어져 결국은 생산자만 불이익을 당하는 불합리한 유통구조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2. 리스자금 사용과 중계업

요즘 정부에서 부실금융 구조조정으로 인한 리스회사의 퇴출이야 말로 앞친데 덮친 격으로 어렵게 일궈온 생업을 중단해야 하는 이중적 고통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정부는 짝 금리인 리스자금 사용을 중용했고 많은 농가에 리스자금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환율상승으로 2배이상의 원금을 상환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어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한 외국자본 유치에 도리어 농가경제 파탄과 시장기능의 악재로 작용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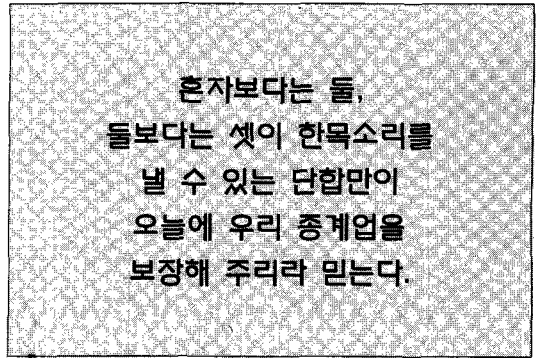
3. 중계 환우에 따른 경영 딜레마

중계업자들은 이익을 남기기 위하여 농장을 경영하는 차원을 넘어서 생존을 위하여 중계업을 영위하고 있다.

만약 중계업을 중단하면 당장 결제해야 할 사료비, 약품비, 시설투자비(리스자금) 등을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정유효사육 기간이 지나더라도 중계를 환우해서 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환우한 계군에 있어서는 생산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 수탉 공급이 이슈화되고 있다. 아마도 수탉을 정상적으로 보충해 주기가 점점 쉽지 않을 듯 싶다.

결국 정상적인 생산에 차질이 오겠고 그로



인해 받는 경제적 손실은 고스란히 농장경영에 큰 타격을 주리라 보기 때문에 어느 방법도 중계업이 안고 있는 문제를 풀지 못하는 악순환의 회오리에 빠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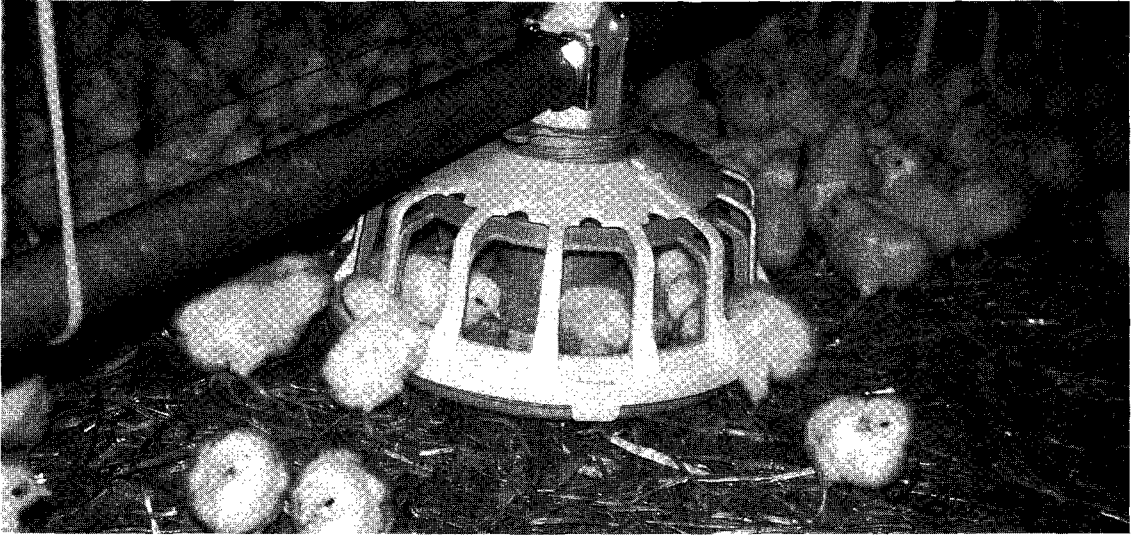
4. 계열화 사업추진과 중계업 불황

일찍이 오늘에 불황을 예측못했던 바는 아닐 것이다. 차일피일 무사안일이 빚어낸 결과 앞에 유구무언일 뿐이다.

철저한 분업화가 이뤄져 상호 유기적인 삼각수평 관계의 소그룹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정부는 오래전부터 수입개방에 따른 대책으로 계열화 사업을 육성 지원해 왔다. 그 목적은 양계산업 모든 발전과 경쟁력을 제고함에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막대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목적인 방향과는 많은 차이가 있으리라 본다. 과잉생산은 그렇다손치고 흐트러진 유통질서는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할지 걱정스럽다.

상호보존원칙이 힘의 논리에 무너진다면 과연 천직으로 알고 있는 영세한 중계업자는 누구를 믿고 설자리를 찾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다고 보는가 재고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5. 종계업계 단합이 요구되고 있다.

위에서 지적한 사항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악재는 무척 많으리라 본다. 하지만 무심코 흘려 보낼일도 또 남의 일도 아닐 듯 싶다. 하루속히 용단을 내려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빠른 시일내에 개혁해야 하며 우리의 의식전환이 절대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혼자 보다는 둘, 둘보다는 셋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단합만이 오늘에 우리 종계업을 보장해 주리라 믿는다. 종계·부화발전협의회에서도 금년 실용계 생산과잉을 방지하고 수급조절을 하기 위해 병아리 생산조절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왔고 앞으로도 업계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6. 결론

오늘의 불황을 가져오게 된 동기는 굳이 재론을 하고 싶지는 않다. 앞으로 어떻게 해서 우

리 주변에 산재해 있는 난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가 심혈을 기울여 연구검토하는 길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거센 파도는 훌륭한 선원을 만든다고 했다.

구조조정의 참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할 줄로 생각된다. 그리고 종계업과 관계되는 모두는 힘을 합해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서로간의 이익증진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한다면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 믿는다.

종계 사육은 중단할 수 없다. 기상관측사상 최고의 폭우는 많은 국민을 실의에 빠지게 했으며 분노하고 슬퍼하고 침통해 하고 있다.

마치 우리업계의 현 주소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한 기분이다. 허나 우리 민족은 위기에 강한 국민으로 온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수마에 상처를 딛고 꼭 재기하리라고 믿는다. 우리 종계인 또한 아집에서 거품을 완전히 제거하고 슬기롭게 재도약한다면 머지 않아 장래에 좋은 결과를 얻으리라고 갈망해 본다. 양계